

# 창검·사약·투표... 도구로 본 권력투쟁 변천사

## 당쟁의 한국사

김종성 지음



불과 1세기 전만 해도 정치 투쟁에서 진 자는 거의 목숨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사정은 비슷했다. 유럽과 북미에서는 이 같은 행태가 빨리 없어졌지만, 다른 지역의 세계에서는 20세기까지만 해도 비일비재했다.

기존의 역사서와 달리 권력 투쟁의 변천에 따라 한국사를 조명한 책이 나왔다. '철의 제국 가야', '조선을 바꾼 반전의 역사' 등의 저자 김종성이 펴낸 '당쟁의 한국사'는 고조선부터 현대까지, 대립과 파벌의 권력사를 들여다본다.

저자는 도구의 재료를 토대로 석기, 청동기, 철기로 역사를 구분하는 것처럼 권력 투쟁의 방법에 따라 '창검의 시대', '사약의 시대', '투표의 시대'로 한국사를 나눈다.

창검의 시대는 창검으로 대표되는 군사력으로 정권이 교체되던 시기다. 고조선부터 조선 전기까지가 이에 해당한다. 사약의 시대는 조선 중기부터 말기까지로 무력 투쟁보다는 사약으로 대변되는 합법적인 정치 투쟁으로 정적을 제거하던 시기다.

마지막으로 투표의 시대는 일제강점



고조선부터 현대까지, 우리나라는 대립과 파벌의 권력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치적인 다툼의 연속이었다.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대. <유유문화사 제공>

기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시기다. SNS나 인터넷상의 여론전을 주무기로 선거를 통해 정권이 교체되는 시대였다. 이 시기에는 노사모, 일베, 가짜 뉴스 등이 대표적인 여론전을 드러내는 말이었다.

저자는 권력 투쟁을 벌인 정치 파벌을 근거로 각 시기의 역사를 개괄한다. 고조선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는 종교가 정치권력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았다. 이 즈음의 대표파벌은 신선교와 불교였다. 이들의 다툼에서는 불교가 승리를 거두고 구려, 신라, 백제, 가야 같은 왕조들은 모두 신선교에서 불교로 전환한다. 물론 사찰의 산신각에서 보이는 산신숭배 신앙처럼 신선교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고려시대 때는 문신과 무신이 양대 파

벌이었다. 광종의 과거제 실시 이후 문신들이 권력을 잡았지만 이후 무신정변으로 무신이 권력의 중심에 선다. 하지만 이후 신진사대부들이 등장하면서 문신의 지배가 다시 굳어진다.

조선시대에는 훈구파와 사림파의 대결, 사림파 내에서 갈라져 나온 봉당정치, 이후 탕평정치와 세도정치에 이르기까지 정치 파벌의 싸움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저자는 각 시대 상황을 보여주는 예시로 비선 실세들의 행태도 소개한다. '신라의 팜파탈'인 미실은 후궁이지만 세 명의 왕을 섬기며 막강한 배후 실력자로 군림했다.

조선시대 왕자에게나 붙는 '군(君)이라는 칭호를 받은 유일한 무당 진령군 역시 비선 실세의 힘을 보여주는 인물이

다. 그는 임오군란 때 피신한 명성황후에게 찾아가 궁궐로 복귀한 날짜를 정확히 예언해 신임을 얻고 인사권에도 관여한다. 고관대작들마저 그를 누님이라 부르며 따를 정도였다는 것은 최근 우리가 경험한 촛불집회와 맞물려 씁쓸한 대자뷰를 느끼게 한다.

나아가 저자는 한국의 근현대사의 큰 사건 또한 정치 권력사 측면에서 들여다본다. 3·15 부정선거와 4·19혁명, 5·16 쿠데타 같은 굵적굵적한 사건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이밖에 군 사조직인 하나회와 일자회, 6월 항쟁 막후에서 활약한 제임스 힐리 전 미국 대사 같은 뒷이야기들도 흥미롭게 소개돼 있다.

<유유문화사·1만6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꽃 아닌 것 없다=시작시인선 237권. 1991년 '시와 시학'으로 등단한 이래 정갈한 서정의 깊이를 보여준 복효근 시인의 여덟 번째 시집이다. 지리산 아래 살면서 산처럼 푸르고 깊은 시를 꿈꾸며 사는 복효근 시인은 고도의 집중과 함축을 통해 생의 본질을 간절함으로 그려내고 있다. 특히 77편의 짧은 시들로 구성된 이번 시집은 시의 부피는 덜어내고 압축된 문장을 통해 말하는 이의 시선은 웅숭깊고 따뜻하다. <추천년의 시작·9000원>

▲다윈의 핀치=다윈의 뒤를 잇는 세계 최고의 진화생물학자 피터 그랜트&로즈 메리 그랜트. 그들은 이 책을 통해 '새로운 종의 이주는 기존에 거주하던 종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종교배의 원인은 무엇인가?', '왜 흥내지빠귀는 핀치 새만큼 다양한 종으로 분화하지 못했는가' 등의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고 풀어냈다. 두 사람은 관련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은 물론, 해당 주제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핵심 주제와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했다.

<다른 세상·1만4800원>  
▲어리석은 자의 기록=엘리트 남평, 미모의 아내, 귀여운 아들과 딸... '행복'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듯한 가족이 참혹하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여. 경찰의 수사도, 대중의 관심도 지부진해져가던 어느 날, 한 르포라이터가 심층 취재를 하다가 피해자의 지인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한



다. 증인이 쌓여갈수록 사건의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나는데... 인간의 가장 어두운 구석까지 날날이 파헤치는 르포라이터 미스터리의 진수를 보여준다.

<비채·1만3000원>  
▲시간과 공간이 정지하는 방=30여 년이 넘도록 나이를 초월해 우정을 나누고 있는 이외수 작가와 정태련 화백의 신작. 두 작가가 '하악하악', '절대감자' 등에 이어 여덟 번째로 함께 만든 이 책에는, '치열한 인생, 사랑 하나면 두려울 것 없네'라는 말처럼, 험난한 인생을 사랑으로 버텨내리라는 다부진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 외수 작가가 매일의 일과를 보내며 집필한 원고는 정태련 화백이 1년여 동안 그려낸 그림 73점과 어우러졌다.

<해냄·1만5000원>

## 어린이·청소년 책

▲도토리 탐정=다람쥐들이 사는 딱딱 나무 숲, 모두 도토리를 모으며 겨울 양식을 준비하는데 어느 날 누군가 도토리를 훔쳐 갔다. 다람쥐 탐정을 앞세워 범인 찾기에 나서지만, 범인이 쉬 잡히지 않자 다람쥐들은 서로를 의심한다. 서로 날카로우려고, 함부로 대하고, 싸우고, 심지어 한 다람쥐를 범인으로 몰아세운다. 이 동화는 서로를 의심하며 관계를 무너뜨리고 결과만 중시하며 상대방을 비난하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한다.

<뜨인돌어린이·1만원>  
▲코딱지 백 접시만 주세요!=코딱지라고 보기에겐 사랑스러운, 빨간 귀걸이까지 한 귀여운 코딱지 공주가 주인공이다. 코딱지 공주는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코딱지'와 '콧물'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한다. 동그란 코딱지와 기다란 콧물, 녹색 코딱지, 빨간 코딱지 등 개성 만점의 코딱지 친구들과 함께 코딱지와 콧물은 왜 생기는지, 코딱지와 콧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예의 바른 건지, 콧물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법과 코딱지 색을 보고 몸 상태를 살피는 법 등을 알려준다.

<풀빛·1만원>



▲그렇다면, 칸트를 추천합니다=스스로 생각하는 용기를 내어 자신만의 자유로운 생각을 펼친 위대한 철학자 칸트를 만나본다. 기존의 생각과 가치관을 의심하며 인간 이성의 한계를 탐구한 칸트. 스스로 생각하는 용기를 통해 위대한 철학자로 남은 그의 철학을 살펴보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란 무엇이며 스스로 판단하는 용기와 힘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함께 알아본다. <청어람e·1만2000원>

# 창덕궁·한양 도성... 이번엔 서울 문화유산 답사

##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9·10

유홍준 지음

국내 유적지에 가면 이 책을 들고 다니는 사람을 많이 만나곤 했다.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1993년 '남도답사 일번지'라는 제목을 달고 나온 1권은 우리 지역 강진과 해남을 다뤄 눈길을 끌었고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은 일반화됐다. 답사기는 25년 세월 동안 8권의 국내편과 4권의 일본편이 나왔다. 판매량은 모두 350만부에 이른다.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9·10'이 나왔다. 이번에 찾아간 곳은 서울이다. 서울편은 모두 4권으로 예정되었으며 1, 2권이 먼저 출간됐다.

창덕궁 존덕정에 걸려있는 정조의 글에서 빌려온 '만천명월 주인은 말한다'를 제목으로 삼은 서울편 1권은 서울의 권위와 품위를 상징하는 조선 왕조의 궁궐이야기다. 저자는 과거와 현재, 미

래가 공존하는 서울의 문화유산과 역사를 통찰력 있는 시선으로 바라본다.

책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종묘와 창덕궁, 창경궁을 다룬다. 조선왕조 역대 제왕과 왕비들의 혼을 모신 사당인 종묘와 그곳에서 행해지는 종묘제례(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에 대한 이야기는 흥미롭다.

또 '한옥 종합 전시장'을 방불케 할 만큼 다양한 형태와 구조를 지닌 전각들로 이뤄진 창덕궁과 부용정, 규장각 주합루, 애련정과 연경당 등 우리나라 정원의 백미로 불리는 창덕궁 후원에 대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둘째권 '유구학선 무주학불' 조선왕조가 남긴 문화유산들을 답사한 내용이다. 서울의 옛 경계인 한양 도성, 조선왕조의 이데올로기를 상징하는 성균관, '삼국지연의'에 등장하는 관우를 모시는 동관용묘, 조선시대 왕가와 양반의 별서(別墅)들이 남아 있는 '자문밖' 이야기를 담았다.

구상중인 셋째권은 인사동, 북촌, 서촌, 성북동 등 묵은 동네 이야기를, 넷째권은 서울의 자랑인 한강과 북한산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다.

진도와 보경도 등 섬이야기, 송광사와 통도사 등 사찰 이야기 등 아직 '시작도 못한' 이야기가 무궁무진하다고 하니, 그의 답사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 기다리는 독자들 역시 즐겁다.

<창비·각권 1만85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투자가치 높은 물건,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문의 H. 010-3605-5000

<h3>삼각동, 토지</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주 북구 삼각동 147-4, 11, 15번지 - 313평 209, 209-1번지 - 203평</li> <li>■ 31사단, 삼일아파트 지나서 옆마을</li> <li>■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li> <li>■ 아파트 예정 후보지 1순위 지역</li> <li>■ 단기간 투자 최고지역</li> <li>■ 매매 - 평당 200만원 (조정가)</li> </ul>	<h3>리조트 / 무인텔</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도곡 관광은천지구 내, 숙박시설</li> <li>■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li> <li>■ 3개동, 객실 52개, 각 호실 개별등기</li> <li>■ 감정가/시세 70억, 매매 42억</li> <li>■ 온천지구 내 '(주) 바리오 화순' 에 650억 투자 예정 (2018년 2월 착공)</li> </ul>	<h3>다도면, 임야</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한전(KPS) 연수원 인근</li> <li>■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li> <li>■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li> <li>■ 모든업종 개발가능</li> <li>■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li> <li>■ 매매 - 평당 70만원</li> </ul>	<h3>광양, 근린상가</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락희호텔 근처</li> <li>■ 6층중 4층, 210평</li> <li>■ 2012년건축, 분할매매가능</li> <li>■ 모든업종 오픈 가능</li> <li>■ 시세/ 감정가 - 12억 5천만원</li> <li>■ 매매 - 7억 8000만원</li> </ul>
---	---	---	--